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5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부활절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증인됩니다.
5.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33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4/17(수) 8시 Zoom 기도회(빌립보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 조은미 사모님. 강단미화: 유금자 권사님 가정 드림.
8.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600.00)

십 일 조: 김반석,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송희복 송순란,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별헌금: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15호 2024년 4월 14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 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민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3:1-8 다 같 이
- 설 교 Sermo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조 병 우 목 사
- 봉헌송 Hymn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 병 우 목 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민연 권사	조병우 목사	조은미 사모	조민연 권사
다음주	유금자 권사	김반석 목사	유혜영 권사	박종님 전도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치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 초기에 맹인 바디매오, 나병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배고픈 큰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주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의 건강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과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참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치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사53:5)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들을 다 고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치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희생으로 저의 영적인 병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Jesus healed many people of their physical affliction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blind Bartimaeus, a leper, and a paralytic, to name a few. His care for the health of those following Him was also demonstrated in providing for their hunger by multiplying a simple meal to feed the masses.

Each of these miracles reveal both Jesus’ mighty power and His genuine love for people. His greatest act of healing, however, came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s fore told by the prophet Isaiah. It is “by [Jesus’] wounds we are healed” of our worst affliction: our separation from God as a result of our sins (Isa. 53:5).

Though Jesus does not heal all our health challenges, we can trust the cure for our deepest need: the healing He bring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Jesus,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that brings healing to my spiritual sickness. Help me to trust You in my physical challenges.’